

##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6/27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삼하 7:12, 14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

대상 22:10

10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사 9:7

7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불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사 11:1-3

1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으리라.  
2 그분 위에 여호와와 영께서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3 그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도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으시리라.

마 3:17

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다.”

----

사무엘기하 7 장 12 절에서 ‘네 씨’는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그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였다 (왕상 5:5, 8:15-20, 대상 22:9-10, 28:6).

그러나 사무엘기하 7 장 14 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 장 5 절 하반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히 1:5 하-6),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분이시다. 이 절의 솔로몬은 그분의 예표이다. (삼하 7:12 각주 1)

사무엘기하 7 장 12 절에 있는 ‘네 씨’와 14 절에 있는 ‘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씀은 로마서 1 장 3 절부터 4 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부활 안에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2 장 41 절부터 45 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신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즉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놀라운 인격이신 하나님-사람이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절들은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하나님 자신 곧 신성하신 분께서 사람의 씨, 곧 사람인 다윗의 씨가 되셨다. 이 씨는 하나님-사람 곧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며(마 1:18-21, 딤후 2:8), 그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눅 1:35). 사람의 씨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삼하 7:14 각주 1)

##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2 장 41 절과 42 절은 이렇게 말한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다 (마 22:42). 의심할 바 없이, 성경에 따르면 이 대답은 정확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43-45 절) 여기에서의 질문은 어찌 증조부가 증손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성경 지식을 반쪽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신 것만 알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나머지 반쪽은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22 장 43 절에 영이 언급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알수 있음을 가리킨다(엡 3:5).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은 하나님 이시자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자손이시다. ... 그분은 가장 위대하기도 하시며 가장 작기도 하시다. 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정도로 그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에 대한 지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이실 것입니다. 만일 참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이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생명과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어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고 또한 아버지라 불리신다는 것을 안다(비교 사 9:6).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한 인격 안에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신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 분은 두 본성과 두 생명을 가지신 한 인격이시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을 찬양한다! 우리는 놀라우신 분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받아들이며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9 장, 695, 697-6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9 장

6/28 화요일

### 아침의 누림

계 22:16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

행 13:23, 33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롬 8:28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요일 4:9, 14-15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계 1:5-6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6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 1:5

5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신성의 면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시요 근원이시며, 인성의 면에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후손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뿌리로서 주님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시요 다윗에게서 난 순이시다(마 22:42-45, 롬 1:3, 렘 23:5). ‘다윗의 자손’이 주님께서 사람이시고 다윗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다윗의 뿌리’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두 본성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 장 16 절에서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셨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444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3 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증언할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31 절)라고 지적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32-33 절)라고 말했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또 다른 출생이 되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롬 8:29).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요 1:18, 3:16). 육체가

되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바울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 편 7 절 하반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바울은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출생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주 예수님은 두 번 출생하셨다. 먼저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 그런 다음 삼십삼 년 반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되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두 번째 출생을 가지셨다. 왜냐하면 사람이신 그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첫 출생에서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나셨고, 두 번째 출생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의문을 품고서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라고 말할지 도 모른다. 그렇다.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분은 육체 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 그분께 필요했는가?

신약에 따르면, 그분은 두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셨다. 둘째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 이시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오직 한

아들만 있음을 가리킨다. ... 영원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요 1:18, 3:16).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맏’(비교 히 1:6)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이 있음을 가리킨다(히 2:10).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며, 주님의 많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다(롬 8:29).(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37 장, 314-3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37-38 장

6/29 수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히 1:6

6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

벧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히 2:12

1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골 1:15-18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벧전 1:3).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 이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신 우리 또한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벧후 1:4).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롬 8:29).(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2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4장, 693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요 1:1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요일 4:9, 요 1:14, 3:16).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그분은 신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인성을 가지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만아들로 태어나셨다(행 13:33). 동시에 모든 믿는 이가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벧전 1:3),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그분의 몸을 구성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육체가 되시어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신 후,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만아들로 태어나셨다. ... 이것은 가장 큰 단체적인 출산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다(요 20:17, 마 28:10).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이 이것을 확증한다. ... 그분은 또한 그들을 교회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만아들의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구성체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은 있으셨지만 인성은 없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셨고 항상 살아 계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면서부터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만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만아들을 근거와 본과 요소와 수단으로 삼아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데, 산출된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만아들을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된 많은 믿는 이들이다. 이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정확하게 만아들과 같고 만아들처럼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들은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나타내기 위한 그분의 증가와 표현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미리 정해졌다. ...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변화의 최종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외적 모습이 바뀌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된 형상과 걸맞게 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대량 재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품인 우리 안에서의 내적, 외적 변화는 모두 생명의 영의 법(롬 8:2)이 우리 존재 안에서 운행한 결과이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080-3082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293, 295, 435 장

### 6/30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 요 1:1, 18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롬 8:3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 눅 1:31-32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 행 13:33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보다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벧전 3:18

18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

인정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갖고 계신 인성은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진 인성이다. 심지어 그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한 놀라운 인격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모형과 본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높이 올려진 인간 본성을 모두 가지셔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2 장, 60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유대인들은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이신 주님의 신분을 인정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셨음을 시인했다(마 1:1, 9:27, 12:23, 21:9, 15).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 가운데 큰 논쟁이 있었다(막 2:5-7, 요 6:41-42). 어느 날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마 16:13)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신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14 절)라고 말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분의 인격에 관해 그들끼리 논쟁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계시가 없었으므로 그분을 신언자들 중 가장 위대한 분으로 알 수

있었을 뿐,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16 절)이시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요 1:18, 롬 8:3). 그러나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후,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로마서 1 장 4 절에 따르면,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인성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달랐는데, 그것은 그분의 부활이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즉시 그분께서 사람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달리 말하면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한 요소 곧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져야 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람의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다. … 주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인정되신 것이었다. …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데, 이것은 곧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인성 안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한 신성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임을 보아야 한다. 로마서 1 장 4 절에 있는 ‘능력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분의 영은 ‘살아났다’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3 장 18 절과 일치한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인성 곧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인 그분의 영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기 있게 되어, 신성을 그리스도의 인성 안으로 넣어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지 인간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은 강하게 되어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재는 그분의 영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017-30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5, 27, 31 장

### 7/1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1:20

20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 히 2:11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

**엠펙 1:19-20**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히 2:14-15**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 17:5**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행 3:13**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

로마서 1 장 4 절에 있는 거룩한 영은 3 절에 있는 육체와 대조된다. 3 절에 있는 육체가 그리스도의 인간 본질을 가리키듯이, 4 절에 있는 영은 성령의 위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적 본질, 즉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 그분의 인성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육체이셨다. 그분의 신성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영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시다. ... 예수님의 신성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 자신인 이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변화시켜 신성하게 만드는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019-30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카네이션씨는 표를 붙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히고 자라고 꽃 피어 카네이션이 됨으로써 인정된다. 이것은 카네이션씨가 그 속의 생명에 따라 인정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카네이션씨는 생명에 따라 인정된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제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량 산출하기 위한 모형이시자 분이시다.

어떻게 이 많은 아들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는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 있다. 이 절들에는 중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다. 즉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영에 따라 말하자면’, ‘거룩한 영’, ‘능력’,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다. ... 3 절과 4 절은 사실상 책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로마서는 육체 안에 있던 죄인들이 능력으로 또한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영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타고난 부모에게서 받은 육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두 본성, 즉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두 본성을 갖고 계시며, 우리 또한 두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가 되셨었고 우리 또한 육체입니다. 당신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으며, 우리 안에도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며, 이 거룩한 영은 … 그리스도 자신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실질과 본질과 요소와 본성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성은 다른 모든 것들과 절대적으로 다르며, 또한 다른 모든 것들과 분별된다. 거룩한 영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질을 갖는다. 이 영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있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교회에게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젯거리이다. …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따라 처신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처신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육체를 따라 처신할 것인지, 그 영을 따라 처신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3 장, 610-611 쪽, 54 장, 6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 44-45, 52, 54-55 장

7/2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일 3:1

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2, 10-11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자아의 모양에서, 자아의 표현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 장 4 절을 8 장 29 절에 연결해야 한다. … 1 장 4 절에는 원형의 형성이 있지만, 8 장 29 절에는 ‘대량 산출’의 일이 있다. 1 장 4 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개인적으로 인정되시는 것이 있지만, 8 장 29 절에는 많은 아들들이 단체적으로 적셔지고 거룩하게 되고 인정받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있다. 각 경우가 원칙에 있어서 동일하다.

주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 안에 거룩한 영이 있었다. 이 거룩한 영은 거룩함의 신성한 본질이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이 거룩한 본질은 주님의 육체를 포함한 주님의 인성을 적셨고 그 인성에 침투했다. 주 예수님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 또한 거룩함의 신성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 본질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룩한 영,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거룩한 본질이 지금도 우리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이 본질이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45 장, 54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사무엘기하 7 장에 계시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한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비밀이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은 이처럼 함께 건축되고

서로 안으로 조성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사람이라 불리는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었다.

사무엘기하 7 장 12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씨에 대해 말씀하시고, 14 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절들은 분명히 사람의 씨, 즉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지극히 위대하며, 결국 성경 전체는 이 문제로 완결된다. 성경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요점을 주의하지 않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된다. ...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자’인 성경에 관심을 갖지만, 이 상자의 내용인 ‘다이아몬드’는 보지도 못했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든 ‘다이아몬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 하시어 한 실체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성경의 이 핵심 요점을 소홀히 한다. ...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요점의 한 방면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믿지만, 다른 한 방면인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1 장, 235-2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1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8 장*

### 7/3 주일

#### 아침의 누림

##### 롬 1:1-4

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히 1:1-6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므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하나님은 만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 계 22:16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이다.”

#### 2022. 6. 27 ~ 2022. 7. 2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1-2 장

####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5, 27, 31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9 장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37-38 장  
신약의 결론, 293, 295 장*

<b>찬송</b> <b>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b>
-----------------------------------

**1.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니  
 천사도 사람도 측량 못할 경륜  
 하나님 맘에 갈망하신 선한 뜻일세  
 이로 인해 이뤄지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2. 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육신돼 사람 되셨네  
 난 그 성품에 참여하나 그의 신격에는 참여 못해  
 그분의 속성 내 미덕되니  
 난 영광스런 그분 형상 나타낸다니  
 그의 속성 내 미덕돼 그 영광의 형상 나타내

**3. 이제 나 홀로 살지 않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네  
 하나님 안의 성도들과 삼일 하나님의 집 건축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되어  
 큰 단체적인 그릇으로 그를 나타내  
 유기적인 몸으로서 그리스도 나타내네

**4.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상과 계시의 최종 집대성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연합된 부부일  
 신성과 인성이 서로 거쳐 되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신성 인성 상호 거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